희망을 찾아서

"노력해서 안되는 건 없어요!"

상명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시각장애 1급 강신혜 학생

상명대학교 교정에서 긴 생머리의 대학 2년생 시각장애 1급 강신혜 학생과 그녀의 안내견 '미래'를 만났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과수석을 했고 2학기에는 3등을 할 정도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그녀에게 선천적으로 보이지 않는 눈은 전혀 장애가 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상명대학교 개교기념 행사에서 '우수 인재상'을 받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국어교육학과라서 고어나 한자가 많이 나오는데다 공부할 양이 점점 많아져서 어렵지만, 요청하면 교수님들께서 수업 내용 파일을 잘 주시고 함께 다니는 도우미 학생들도 필기를 도와주는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받은 주위의 도움을 일주일에 한 번 맹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왜 꼭 일반학교의 교사가 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는 "물론 맹학교 교사가 생활하는 면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볼 때 더 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제 한계를 시각장애라는 틀에 넣어서 단정짓고 싶지는 않아요"라고 단호히 말하는 그녀의 말속에는 굳은 의지와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노력해서 안되는건 없어요!"라는 그녀의 마지막 말 속에 꿈을 이루는 데 있어 장애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당당함이 엿보였습니다.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붉게 물든 저녁노을이 오늘따라 더욱 아름답군요"

시각장애인을 대할 때 '본다'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피하거나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무조건 말을 낮추어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듯한 언행, 또는 지나친 친절은 오히려 불편하고 어색한 자리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평소와 같은 기분으로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 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다는 "붉게 물든 저녁노을이 오늘 따라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군요."라고 말한다면 더욱 멋지지 않을까요?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25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기관입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전화: 02-9500-103)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국민은행: 835-01-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손으로 보는 세상 | 제14권 12호 통권 101호

2008년 12월 1일 발행

발행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및 편집인 : 권인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전화 : 02-6925-1114 _ 팩스 : 02-6925-1117
Homepage : www.kbuwel.or.kr
E-mail : kbuhongbo@hanmail.net
우)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호 이롬센터 3층 305호

제작 : 쥬비컴 디자인전문회사
전화 : 02-2091-1255 _ 팩스 : 02-2091-1253

표지이야기 : 좌상단 : 시각장애인 단풍패스티벌에서 사과 따기 체험을 하였습니다.
우상단 : 여성시각장애인들이 문화탐방 행사 중 낙농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 단 :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만의 직종으로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2008, December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2차원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우측상단)

테마기획

"시각장애인들도 안마 외 다른 직업을 갖고 싶어 합니다."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들만의 고유 업종'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마업을 할 권리가 있으나 시각장애인은 안마업이 아니면 생존의 위협을 받기에 단순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넘은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는 취지의 판결문도 발표하였습니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래도 살만하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헌재 판결 후 불법 안마행위자들은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여전히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징적 합헌과는 달리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TV에 비쳐진 시각장애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시각장애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각장애인계에서는 헌재의 판결이 마냥 기쁘지만 않다는 반응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도 안마 외 다른 직업을 갖고 싶어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다 궁극적인 직업대책이 절실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정부의 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